거룩함은 거북함이 아니다

(레11:1~47)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4.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5.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6.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7.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8.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룩함은 거북함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거룩함은 거북함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삶은 거북해집니다. 혹시 내 마음에 일순간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 존재하고 내 행동과 행위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내 삶에 거북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괴로워해요? 삶이 거북해서 그렇습니다. 일순간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한 것인데 그 결과가 도저히 편안하게 있을 수 없는 거북함의 상태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내 삶이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은 거룩할 때입니다.

거룩함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는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생물들 즉 포유류, 물고기, 조류, 곤충, 파충류 등을 포함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규정해 주시면서 정함과 부정함,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물들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의 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따라서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 선민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관계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함이신데 선민도

이와 같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동물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소, 양, 염소, 노루, 사슴은 먹어도 된다는 것이고 물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규정을 따져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고등어나 꽁치 장어도 먹지 못하고 한국사람 같으면 보신탕을 못 먹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1장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선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대로 이러한 규정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규정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쇠고기가 얼마나 비싸고 양고기도 구하기 쉽지 않고 염소고기는 어디서 구합니까? 어떻게 보면 큰일 날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다 폐지시켜 주셨는데 본문에 담겨있는 문자적 의미까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라고 하는 것이고 깨끗함은 결국 거룩함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예배드릴 때에 거룩하라면 이해가 되고, 장로 장립식이라든지 목사 위임식 같이 장중한 의미가 들어있는 예식에서 거룩하라면 이해가 되고, 심지어는 세속적이긴 해도 결혼식에서 거룩하라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먹거리를 고름에 있어서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한마디로 식사자리에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고를 때에 먹어도 되고, 안 되고의 거룩함의 문제가 요구된다면 음식을 만들어 먹는 식사자리에서도 거룩해야 하는데 식사 자리라는 것은 아주 편안해야만 되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선을 보면서 하는 식사는 형식적으로 먹는 것이지 무슨 맛인 줄을 모릅니다. 적어도 1년은 사귀어서 서로 웬만한 허물은 덮어줄 수 있을 만큼 친해졌을 때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죠. 비싼 돈 주고 먹으면서 선보는 자리에서는 이 맛인지 저 맛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일상적인 일들이 반복되는 순간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식사를 편안하게 하기는 글렀어요. 내가 선민인 한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향하신 첫 번째이자 마지막 요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인데 식사 자리에서까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일반 사전을 보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나옵니다. 벌써 답답합니다. 6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만 딱히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높아보였던 뜻, 위대해보였던 뜻 이면에는 모두 야심이 들어있었고 나의 세속적인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북합니다. 그리고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거룩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공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단어들로 사용되고 있는데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가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이나 세속적이고 비 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된장찌개를 맛있다고 먹지 말고 경건하게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먹을거리에서 정과 부정을 이야기하시고 정결함과 더러움의 기준을 이야기해주신 이유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이제는 맛있다고 먹으면 안 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니 거룩함이 얼마나 거북합니까? 이러한 정의들이 틀렸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요즘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거룩함에 구멍이 생겼다고 한탄들을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거룩함의 지극히 형식적인 정의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적인 정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룩함이 참으로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외형적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돈 벌고 싶고 우리 아들딸이 형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죠. 암이 걸린 계신 분이 있다면 건강에 대한 소원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러나 암에 걸린 상태에서 그 암이 완치되기를 바라는 욕구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가 욕망해야 될 것이 거룩함으로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온 가족이 궁지에 몰리게 생겼습니다. 돈 천만 원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천만 원에 대한 강렬한 욕망보다 더 먼저 강렬하게 원해야 될 것, 원해도 되는 것을 원해서 거룩함을 쟁취하기만 하면 돈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거룩함인데 거북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삶이 거북해지는 것입니다. 돈 천만 원이 없어서 거북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암이 걸려서 거북해진 것이 아니고, 내 자식들이 실패하고 공부를 못하고 취직을 못하고 결혼을 못해서 삶이 거북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북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거룩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꾸 무슨 도덕적인 삶을 살고 세속과 분리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뭐가 경건입니까? 웃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까? 몸이 경직되는 것이 경건입니까? 아니요. 너무 좋아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불경건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오늘 먹거리로부터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문자적으로는 신약성경에 와서 폐지되어 버립니다. 깨끗함과 불결함에 대한 기준도 예수님께서는 마15: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눅11:39-41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고 하시며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도 예수님께서 바꾸셨는데 오늘 레위기의 문자에 담겨있는 의미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완성시키신 것입

니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결국 오늘 레위기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거룩 하라는 것인데,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함을 말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면 거북함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럽고 거룩하지 못해서 거북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가 그만 배설을 해서 배설물이 내 옷과 손에 묻었습니다. 얼마나 거북합니까?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거북함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거룩함이 없는 상태가 거북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도대체 거룩함과 깨끗함이 연결되면서 거룩함의 반대가 거북함이라는 것을 나타내줄 만한 본문이 없을까요? 그 본문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변화 산의 체험입니다. 막9:2-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합니다.
빨래는 깨끗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빨래의 목적은 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떤 빨래의 달인이 빨래를 하더라도 도저히 그렇게 깨끗하고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희게 되셨는데 바로 거룩하심의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인데 이 세상의 깨끗함과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 세상에서 쓰는 깨끗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될 만큼 깨끗하신 분으로 드러나시는데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세상과는 구분이 된 하얀 것을 보면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혹시 만지면 티끌이 묻을까봐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로 좋은가 하면 그냥 ‘머물자’고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벼슬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던 미래의 핑크빛 계획이 성취된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돈이 있던 자리가 아니에요. 일류 대학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진수성찬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겠다고 하던 모든 꿈과 비전과 계획을 다 망각해버리고 여기에 머물자고 할 만큼 좋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기 있고 싶은 것입니다. 거북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여겼던 모든 상황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좋아서 세상적으로 내게 필요한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고 말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왜 그렇게 원합니까? 좋아서 원합니다. 자식들이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왜 그렇게 원합니까? 좋아서 원합니다. 건강을 왜 원합니까? 좋아서 원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건강과 자식들이 일류대학에 들어가고 일류직장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돈과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잊혀 질 정도로 좋은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보입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죠? 왜 이걸 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깨끗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좋음 자체가 거룩함의 내용으로 너희도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좋아하고 항상 좋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고 이것이 깨끗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딱딱한 율법책으로 생각하고 제사법에 관한 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함을 지향하는 책이고 가장 좋은 것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가장 좋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의 옷에 관한 얘기,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사를 일상화 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바로 거룩함을 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 안에 있는 자질을 계발함으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성으로 거룩함을 지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방법이 제사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이유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먹거리가 나온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먹는 것입니다. 필수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에서 거룩함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항상 좋음의 상태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망각될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핵심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본문은 음식물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마음이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상태가 구약 때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때에는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규정을 내가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십자가 복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생산지인 하나님의 마음에 아예 우리 마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 규정을 따로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들과 일치해서 나타나는데 바로 십자가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 되어서 항상 기뻐함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앞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과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고 이 상황이 됐고 이러한 모습이 되었고, 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로 이 세상을 이렇게 편성시킨 것으로 그 가치가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가 들어오십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선민들의 나라가 하나님이라는 궁극적 가치, 최고의 가치이신 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편성되고 어떻게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느냐하는 것을 이야기해주시는 책이고 어떤 나라가 되느냐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미혼모가 우리나라의 미혼모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미혼모를 떠받듭니다. 미혼인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된 그런 행위 자체가 칭찬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게 된 이 결과적 상황을 온 국가와 민족과 사회와 제도와 헌법 전체가 다 받들어 줍니다. 무조건 우선적인 혜택을 주고 무조건 많은 보조를 해주고 복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피해야 하고 감춰야 하고 가려야 하고 미혼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기보다 힘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독일과 한국의 미혼모의 일생은 완전히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이라는 가치를 마음의 지성소에 넣고 자식의 성공이나 건강이라는 가치를 첫 번째 사랑의 자리에 넣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가치에 대해 죽기를 일상화하면서 매일 매일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시기를 바라며 살 때에 어떤 나라가 될까요? 독일과 한국에서의 미혼모의 상황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나라를 살게 되는데, 그 다른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 날마다 제사를 일상화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해나가라는 것인데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데 이제 우리 선민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은 세상의 깨끗함으로서는 표현이 될 수 없고 그 깨끗함은 궁극적인 좋음으로 더 이상의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좋음이 원래 타락하기 전의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좋음이었는데, 다른 좋음이 있는 줄로 알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호불호를 판단하면서 채택하게 되고 궁극적 좋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거북살스럽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는 말씀이 거북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거북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에덴 바깥의 나라의 일이고, 독일과 한국에서의 미혼모만큼 차이나는 다른 나라의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제사를 일상화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획득하게 되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일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다보면 먹고 사는 것은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강렬한 욕구로 내게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먼저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거룩함을 구하세요.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없음으로 거북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느끼시는 거북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결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셔서 거룩함의 핵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친해져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내 손끝과 발끝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한 외향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함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상태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내 삶은 태초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서 가장 자연스럽고 원래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거북함이 아닙니다. 거북하고 부자연스럽고 껄끄러운 삶을 사는 이유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거룩함에 도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보다 먼저, 건강보다 먼저, 우리 자식들의 성공보다 먼저 거룩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매 순간 순간 십자가만을 생활화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